

무기수 김신혜, '친부살해 오명' 24년 만에 벗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재심서 '존속살해 혐의' 등 무죄 선고 공소사실 증명 없고 위법수사 인정...장흥교도소서 출소

아버지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살던 김신혜(47·여)씨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는 6일 존속살해와 사체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은 김씨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는 김씨가 불충직한 상태에서 이뤄졌다.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완도군 완도읍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제를 탄 양주를 먹여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기소 전 수사 단계에서 김씨는 경찰서를 직접 찾아 '자수'했다. 자백 내용은 자신과 여동생을 성추행한 아버지를 죽

이기 위해 양주에 수면제 30알을 타 '간에 좋은 약'이라고 먹였다는 것이었다. 범행 전 김씨가 아버지를 계약자로 한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다는 점도 계획 범죄 정황으로 꼽혔다.

김씨의 자백과 정황 등을 바탕으로 검찰은 그가 범행 후 사체유기까지 했다고 판단하며 기소했다.

1심 재판부였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 200년 8월31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김씨의 항소와 상고기 출중이 각각 돼 1심 판결이 확정됐는데, 이 과정에서 김씨는 수사 기관에서의 자백이 거짓이었다고 입장을 바꾸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번 재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박준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씨가 6일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 변호사 등을 통해 이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법원은 김씨 측에서 신청한 재

심 청구를 2015년에 받아들였다. 사건 발생 15년 만이다.

재심에서 검찰은 위법 수사를 부인하고 범인은 김씨가 맞다며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약 9년간 이어진 재심 절차 끝에 재판부가 내린 결론은 '무죄'였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자수 경위, 수면제 등 증거, 김씨의 알리바이, 강압·불법 수사 여부 등을 따져봤을 때 공소사실에 증거가 없다고 봤다.

특히 경찰이 김씨로부터 받은 자백 진술과 주변인 진술 모두 증거 능력이 없으며 범행 수법 자체가 실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 직전 피고인은 친구들에게 전화해 만나고 했는데 사체유기가 가능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범행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범행 직전 행적은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동생들을 이용해 허위진술을 교사하고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유죄를 단정할 수 없다"며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재심 선고 후 김씨의 남동생은 "진실을 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 누나가 조금이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준영 변호사는 "일관되게 무죄를 주장해 온 당사자(김씨)의 진실의 힘이 가장 강력한 증거였다"며 "출소 후 이 사건이 소비되지 않고 김씨의 마음과 상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공동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후 장흥교도소로 이동한 박 변호사 등이 석방을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김씨는 이날 오후 자유의 몸이 됐다.

한편 이 사건 재심은 판결이 확정된 1심이 대상이었기에 검찰이 항소할 경우 재판이 다시 재개될 가능성도 있다. /인재영 기자

제주항공 참사 9일째...광주·전남 희생자 48명 '영면'

내일까지 장례절차 마무리 될 듯...오는 11일 무안공항서 유족 회의

제주항공 참사 9일째인 6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희생자 48명이 영면에 들었다. 이날 광주·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지역 장례식장에서 총 48명의 발인이 엄수됐다.

희생자들의 장례 절차는 오는 8일, 늦어도 9·10일께는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발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희생자가 집중된 광주·전남 지역의 화장 시설도 연장 운영에 들어갔다. 광주 영락공원 화장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기존보다 2시간 연장 운영하며, 전남 지역 화장장 5곳은 24시간 운영 체제로 전환했다.

무안공항에서는 희생자들의 유류품 인도 절차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기준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은 휴대전화를 포함해 총 728점이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전날에는 유류품 총 1천76점 가운데 264점이 인도됐고, 84점은 인도를 앞두고 있다. 유류품 보관소는 오는 10일까지 운영되며,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무안공항 2층 3번 게이트에서 유류품 보관소를 향하는 버스가 운행된다.

전남경찰청은 당초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LOST 112)을 통해 '무안공항 유류품'을 공개할 방침이었지만,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장례 절차로 유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무안공항에서는 방역·소독 작업이 진행됐다.

지자체와 구호단체, 제주항공 관계자들은 유가족들이 머물렀던 텐트(쉘터) 내 담요와 이불 등 침구류 교체 작업을 했으며, 아직 정리되지 않은 유족들의 양말, 외투 등 소지품을 쉘터 번호가 적힌 봉투에 담아 분류하는 한편, 최근 유행 중인 독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작업도 실시했다.

유가족들은 발인을 마치고 다시 공항에 모일 예정이며,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사고·참사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진상 규명을 기다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무안공항 관리동 3층에 마련된 통합지원센터를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으며 국토부, 광주시, 전남도 등 2개 기관 소속 직원 약 100명이 유가족 지원 업무를 이어간다.

박한신 유가족 대표는 "장례 절차로

유가족들이 자리를 비운 사이 쉘터를 정비하기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를 마쳤다"며 "장례를 마친 유족들은 다시 공항으로 돌아올 예정이고, 오는 11일 전체 유족 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반=인재영·주성학 기자

무안공항 폐쇄 14일까지 연장

제주항공 참사로 폐쇄된 무안국제공항 폐쇄 기간이 일주일 더 늘어났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무안공항 활주로는 오는 14일 오전 5시까지 폐쇄가 연장됐다.

활주로는 앞서 지난달 29일 사고 직후부터 이날 1일 오전까지 잠정 폐쇄됐다가 7일 오전까지 한 차례 폐쇄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희생자 수습과 유류품 등 수색 작업은 전남 일당 마무리됐으나, 한미 합동조사팀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현장 보존을 위해 폐쇄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로 파손된 로컬라이저 등 공항 시설 정비와 마치고 재개장하기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인재영 기자



6일 오전 광주 북구 용봉동 전남대 민주마루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대학교 구성원들이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식민지배·독재옹호 등 일제 미화책을 발간한 교수 파면을 촉구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일제 식민 지배 미화' 김재호 교수 파면하라”

광주전남 시민사회·전남대 구성원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대학교 구성원들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민주화운동을 폄하한 김재호 전남대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다.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및 17개의 시민사회단체는 6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민주마루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전남대는 뉴라이트 성향의 김

교수를 즉각 파면하고, 김 교수는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민 혈세로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하고 한국 민주화를 폄하한 '한국 경제사 개관'을 발간했다"며 "저자인 김 교수는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유명한 낙성대 경제연구소 일원으로, 국민 의함과 함께 5·18특별법의 폐지를 주장한 파렴치한 학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책에 '일제식민지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을 이룩했다'고 적어 일제 식민 지배를 미화했으며, '1987년 (6월항쟁의) 민주화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한 제도적 틀을 무너뜨렸고, 그 결과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다'고 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성과를 폄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로 식민지 지배 미화하는 한국학중앙연구원장 사퇴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배포된 책 전량 수거 및 폐기 ▲김재호 전남대 교수 사퇴 및 사퇴 ▲전남대 김재호 교수 즉각 파면 등을 요구했다. /주성학 기자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USB DVD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인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